

# 남원 '가을 축제 빅3' 준비 만전

남원시가 오는 10월에 펼쳐질 지역 3대 가을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부터 6일까지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흥부제', '2024 남원문화유산 야행'이 남원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시는 성공적인 가을축제 준비를 위해 민선식 부시장 주재로 실무부서 지원단과 함께 '3대 가을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각종 프로그램 준비상황 점검은 물론 먹거리, 숙박, 청소년체험, 자원봉사자 모집, 안전점검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전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광한루원 일원 등 주요 장소와 도로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대회 배너기와 대중교통 랩핑 광고 등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내고 있다.

광한루원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밤 10시 심야연장 운영되면서 시 전역에 다채로운

다음달 3~6일 '국제드론대전' '흥부제' '남원문화유산 야행' 시, 추진상황 보고회 수시 개최 먹거리·숙박·위생 등 점검

즐길 거리, 볼거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10월3일부터 펼쳐질 축제 프로그램들을 막바지 점검과 함께 다채롭게 구성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펼쳐지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에 '로봇'이란 주제를 추가한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으로 행사를 더 풍성하게 치를 예정이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10월6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2024 국제드론·로봇 레저스포츠대회 ▲2024 남원 드론·로봇 전시 체험 & 컨퍼런스 ▲2024 남원 드론공연 체험 페스티벌 ▲2024 남원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등 네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이 외에도 국토부 장관기 초·중·고 전국 드론축구대회, 국가대표급 비보잉 대회 등 드론·로봇 체험과 멀티 드론쇼를 비롯해 김태연, 엔플라잉, SG워너비 등이 출연하는 개막축하 공연이 무대를 장식하고 미미미누, 궤도 등 유명 유튜브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또 우애와 나눔, 보은, 행운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올해로 32회째 축제로 열리는 '흥부제'도 있다.

'흥부제와 함께 대박 나세요'를 주제로 10월4일부터 6일까지 펼쳐지는 흥부제는 정체성을 강화한 축제 콘텐츠 등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특히 흥부제의 핵심 키워드를 행운, 나



눔, 상생으로 정하고 흥부제의 본고장인 남원만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시민참여형·마켓형 축제로 거듭난다.

낮보다 더 아름다운 남원의 밤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2024 남원 문화유산야행'도 빼놓을 수 없다.

광한루의 장경신화인 달나라 공전을 재현해 옥황상제, 견우와 직녀,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한 문화유산 야간 탐방 프로그램으로 5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광한정허부, 달나라 공전으로 초대'를 주제로 10월3일부터 6일까지 광한루원을 비롯해 요천월궁광장 등에서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의 봄에 춘향제가 있다면, 남원의 가을엔 드론국제제전, 흥부제, 문화유산 야행 등 풍성한 가을축제가 있다"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전통과 첨단이 조우하는 다양한 성장을 마련 중인 만큼 모두 함께 즐기는 성공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일상생활 어려운 청·중장년 돌봄 서비스

정읍시, 19~64세 대상 가사 지원·병원 동행·심리 상담 등

정읍시가 9월부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질병, 부상,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중장년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돌봄을 담당하며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은 재가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

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비용은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민들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 '홍재일기' 소유자에 국가유산등록증

유생 기행현 1866~1911년 일기

동학농민혁명사 중요 연구 자료

정읍시가 최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기록책자 '홍재일기'의 유산등록증을 당시 기록 유생인 기행현 선생의 후손이자 홍재일기의 소유자인 관내 솔티도예공방 기근 방장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홍재일기'는 유생 기행현이 1866년부터 1911년까지 45년간 기록한 일기로 총 7책 1099쪽, 42만5552자로 이뤄진 책이다.

그동안 적잖은 논란 속에서 쉽게 왜곡되며 일부 학자들로부터 존재까지 의심받기도 했던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정확한 날짜 1894년 3월26일(음력)을 밝히는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1866년부터 1894년까지의 불기변동, 가뭄, 세금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생생히 기록하고 있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세밀하게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여겨진다.

시는 홍재일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신청해 2년여 만인 지난 달 8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이뤄내는 성과를 냈다.

이로써 시는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에 이어 열한 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홍재일기의 국가등록문화



유산 지정은 정읍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해 시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제공>

유산 지정은 정읍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해 시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농민공익수당 64억원 추석 전 지급

환경실천협약 준수 등 지급 대상 1만756 농가 선정

농민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고창군이 지역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64억여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 3월~5월 1만1028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272농가를 제외한 1만756농가를 지급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난 2021년 12월3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가 대상이다.

논·밭의 농지형상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등을 통한 '환경실천협약' 준수를 통한 이행 조건을 이행한 농가여야 한다.

지급액은 연 1회 60만원, 총 규모는 64억530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을 지류형

또는 카드형으로 나눠 지급하고 마을별 종합행정을 통한 공익수당 지급으로 군민들의 편의까지 제공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상기후와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 위생 점검

13일까지 무등록 제조 여부 등

고창군이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위해 추석 전 먹거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고창군은 오는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한 유통 소비를 위해 제수용·선물용 가공식품과 조리식품,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 및 보존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시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더위가 길어지는 추세로 추석을 앞두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위생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